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2017년 11월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제 출 문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7

연구기관 :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책임연구원 :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공동연구원 :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경희령 (미디어교육 교사)
연구보조원 : 배용찬 (동국대 영상대학원 수료)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	2
3. 연구의 범위	2
4. 연구의 주요방법	3
제2장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현황과 개선점	4
1. 한국 미디어센터 활동의 경과와 현황	4
2.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현황	8
제3장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방안	32
1. 최근 지역문화인력 양성의 방향과 사례	32
2. 미디어센터스태프	40
3. 미디어교육교강사	43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5
1. 시범적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55

표목차

- [표 1] 전국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현황
- [표 2] 지역미디어센터의 지자체 차원 정책·사업 추진 사례
- [표 3] 지역미디어센터 모델별 인력현황
- [표 4] 지역미디어센터의 영역별 업무내용
- [표 5] 2015 토요일미디어문화학교 참여자설문지 양식
- [표 6] 미디어교육 과정별 미디어교육 교사의 역할
- [표 7]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 [표 8]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 [표 9]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무대예술전문교육 세부 프로그램
- [표 10] 미디어센터 실무자의 필요역량
- [표 11] 미디어센터 책임자의 필요역량
- [표 12] 미디어교육 교사의 성장단계
- [표 13]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교육 영역 및 이수체계도_수정안
- [표 14]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성장과정 및 심화과정 설계내용 비교
- [표 15]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 사업 지원분야
- [표 16] 지역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프로젝트 사업 운영일정
- [표 17]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실무자 워크숍 프로그램일정표
- [표 18]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센터별 프로그램 구성안
- [표 19]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워크숍 프로그램일정표

그림목차

- [그림 1]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1
- [그림 2]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1-2
- [그림 3]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2
- [그림 4]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3
- [그림 5]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1
- [그림 6]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2
- [그림 7]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3
- [그림 8]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4
- [그림 9] 아르떼 아카데미의 연수프로그램
- [그림 1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 [그림 11] 문화리더과정 교육 프로세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① 영상미디어센터란?

- 영상미디어센터는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영상매체 기술교육과 영상이론을 비롯한 영상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작품을 상영하고 전시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 공간
- 특히 디지털 미디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민은 영상의 단순 소비주체가 아닌 참여적이고 창조적인 영상(미디어)문화활동의 주체로 성장하여 영상 소비자로서 영상(콘텐츠)를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이해와 다양한 공동체의 공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음
- 영상창작의 영역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희미해져가고 창작자와 관객의 전통적인 이분법도 무의미한 21세기 영상정보시대에는 영상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접근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파악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 영상제작을 위한 기자재 제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음

② 한국에서의 영상미디어센터

-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영상미디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독립영화, 미디어(퍼블릭액세스)운동 진영 등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런 논의를 토대로 2002년 5월 미디어엑트 개관
- 지역민의 창조적 영상문화활동과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지역 MBC), 지자체 등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현재 45개 소 운영 중이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또한 2016년 8월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개정영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영상문화 활성화정책 확대의 법적근거 강화되었으며, 지역·생활문화, 미디어교육, 공동체라디오(미디어) 활성화 등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미디어교육,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동아리 지원, 상영관 운영, 소외계층 미디어활동 지원, 지역문화시설 연계사업

2) 영상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운영비용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런 운영의 어려움은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성, 복지, 재교육 등 인력관리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으며 전문인력의 이탈이 빈번함.
- 중장기적으로는 운영비용 확보를 통해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재교육을 포함한 인력 대상 리프레시(Refresh)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임.
- 영상분야 관련 장비 및 기술적 변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재교육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
-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영상문해력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의 코어로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위치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영역의 문화예술인문 분야에 대한 소양과 해득력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필요함

2. 연구의 목표

- 한국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실무 전문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점 도출
- 영상미디어센터 전문인력의 필요에 기반을 둔 재교육 방안 설계
- 시범 교육 운영 프로그램 제시
- 중장기 영상미디어센터 인력 정책 제시

3.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한국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시간적 범위 : 2017년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1~2년 정도의 시범적 교육프로그램 모델과 중장기적(5년 이상) 시행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
- 내용적 범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문인력의 주요 업무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양성의 방향

- 양성 방향에 따른 단계별 교육 내용
- 시범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안)

4. 연구의 주요 방법

- 참고 문헌 분석
 - 국내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정책 자료 분석
 - 국내 영상미디어센터 인력 교육 관련 자료 분석
 - 인접 분야 문화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분석
- 영상미디어센터 조사
 - FGI
 - 설문
- 전문가 자문회의

제2장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현황과 개선점

1. 국내 지역미디어센터 활동의 경과와 현황

1) 지역미디어센터 활동 연대기

① 설립초기

현재, 전국 45개소의 영상미디어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등 사업명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통칭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은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서 시작하여 舊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확대됨. 특히, 2007년 6월 舊 방송위원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립되면서, 舊 방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의 조율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초기 설립시기 이후 정책재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평가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함.

② 정책공백기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舊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은 2012년까지 중단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은 진행되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및 중장기 발전방안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③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정책유지기

2010년 5월 미디어센터 간 협의회를 출범하였고, 2012년 12월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설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이 재개되었으나 현재까지 매해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은 부재한 상황임.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중심으로 회원센터 간 정보교류와 정책수립확대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및 개별 지자체 차원의 운영정책이 유지되었을 뿐임.

2) 지역미디어센터 현황

설립주체	센터명	운영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제주영상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18개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청풍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사)전남영상위원회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김해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재)강릉문화재단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재)수원청소년육성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	(재)화성문화재단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구학산문화원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사)원주민예총/원주시민영상협의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사)삼동청소년회
		강화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사)꿈과 도전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신한대학교
	합천군영상미디어센터	(주)사이다	
방송문화진흥회 (5개소)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사)경남독립영화협회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MBC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대산학협력단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MBC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주)글로위즈
영화진흥위원회 (1개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사)전북미디어문화연대
지방자치단체 (9개소)	서울시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사)서울영상위원회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

	강서구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
	은평구	은평뉴타운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천군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
	화천군	화천생태영상센터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옥천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옥천군
	양산시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양산시
민간 (2개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기타 모델	미디어경청 (청소년방송국 및 제작센터)		경기교육청

【표 1】 전국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현황

2) 변화된 정책환경

① 새 정부 문화·미디어 관련 정책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문화분야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하위 세부과제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내용(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속 확충 및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 또한 방송미디어분야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설립 등 관련 내용('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 계획 수립, '18년 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② 개별 지역미디어센터 및 지자체 차원의 사례 창출

지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공백은 개별 지역미디어센터 및 지역정부(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문화미디어 사업추진을 촉진하였고 각 지역·지자체의 특수성이 반영된 칸막이 없는 정책·사업 추진 사례가 축적되어 왔음.

구분	내용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의 작은영화관 설립사업과 연계하는 전라북도 관내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대상 '주민시네마스쿨'사업을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수행하여 전북도의 적극적 영화향유정책의 민간 파트너로서 협업 - 전주시의 마을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전주 도시혁신센터 내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노송FM 방송국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민-민, 민-관 간 정책연계를

	위한 매개역할을 수행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1963년 개관하여 2006년 폐관한 강원도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을 원주시재생연구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인근상인회 등과 협력하며 지역 내 영상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원주시와 함께 추진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내 문화예술활동주체와의 협력/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추진
부천 시민미디어센터	- 국토부의 도지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마을미디어사업을 협업하여 추진 - 생활문화센터에 마을방송국(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지역미디어센터의 사업과 연계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지역 내 문학인(작가)과 작품을 소개하는 '강릉시디지털문화관 : 작가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
김해 영상미디어센터	김해문화의 전당(김해문화재단 운영) 내 공연장과 부대시설, 윤슬미술관·아람배움터, 스포츠센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등 소속 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통합으로 즐길 수 있는 통합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화천 생태영상센터	화천생태영상센터 유희공간에 생활문화센터를 구축하여 연계운영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중인 상영관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독립영화전용관'으로 운영

【표 2】 지역미디어센터의 지자체 차원 정책·사업 추진 사례

③ 기타 지역미디어센터 연계 가능 정책·사업

국토교통부의 '201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경우, 관계 부처 연계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중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인프라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혁신 읍면동'정책과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사업과의 연계 방안 고려.

3) 정책과제

○ 영상문화(생활문화) 및 공동체미디어 정책 강화

- 공영방송 독립성 및 방송산업규제 재편과 구별되는 독자적 공동체미디어 정책 수립 및 강화

- 콘텐츠산업진흥과 구별되고 예술정책과 구별 및 연계하는 영상문화(향유) 정책 강화
- 지역 및 공동체미디어, 지역영상문화 정책 강화
- 지역 영상문화·공동체미디어지원 거점·허브 시설로서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 강화
 - 미설립 지자체 대상 정책홍보 및 설립 독려, 소규모 미디어센터(군단위) 설립 정책 추진
 - 법제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 지역미디어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미디어교육 정책 재편 시 전문지원시설로서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포함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 메이커운동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문화정책으로서 지역미디어센터 정책 위상 수립
-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미디어센터 정책과의 연계 및 융합
 -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정책과 지역미디어센터 정책 연계
 - 주민자치, 혁신 읍면동, 도시재생 정책 등과 지역미디어센터 연계
- 영상문화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전국·지역 차원의 횡적·종적 협력·순환체계 정비
 - 영상문화 및 공동체미디어 진흥 전담 공공기관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및 사업운영 방식의 혁신을 전제로, 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 예술교육·미디어교육·공동체방송 등을 지원하는 정부부처·공공기관 간 전국적·횡적 협업·연계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
 - 지역정부 산하 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영상위원회 등 출연·산하기관 간, 지역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생활문화센터·콘텐츠코리아랩 등 시설 간, 지역 내 민관 간 협차·협업·연계를 위한 지역적·횡적 소통체계(네트워크) 마련
 - ‘개인·공동체 및 영상문화·미디어동아리 > 지원시설 및 전문단체 > 기초 및 광역 지역정부 > 산하기관 > 중앙정부’로 연결되는 상향식 종적 순환체계 마련
 - 다양한 장르(음악·연극·무용·미술 등)의 생활문화동아리 간 지역적·전국적 네트워크¹⁾ 구축을 통한 시민주도 민간영역 창출

1) 영국(the UK and the Republic of Ireland)에서는 현재 거의 6,300개의 동아리활동을 통해 약 1,000만 명이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VAN(voluntary arts network)은 이와같은 영국의 자발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자원공유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단체로 문화미디어체육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영국은 자발적/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적 문화예술활동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활동이 해당 지역과 공동체는 물론 국가차원의 사회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

2.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현황

1) 스태프 현황

① 인력규모

각 지역미디어센터의 인력(상근, 비상근 모두 포함)은 최소 4명에서 최대 34명으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 인력만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명에서 최대 31명으로 센터에 따라서 인력규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 인력 중 가장 많은 형태는 5명(25.9%)이며, 다음으로 4명(18.5%), 6명과 7명(각 각 11.1%), 15명(7.4%) 순 이었다. 종합하면 반수 이상인 51.9%의 센터가 상근 인력 5명 이하이며, 6명~10명 이하(29.6%), 11명~15명(14.8%), 21명 이상(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유형				합계
		5명이하	6명~10명 이하	11명~15 명 이하	21명 이상	
모델 유형	문화부 모델	8(57.1)	6(42.9)	-	-	14(100.0)
	방문진 모델*	5(100.0)	-	-	-	5(100.0)
	독립 모델	-	2(66.7)	1(33.3)	-	3(100.0)
	방통위 모델	-	-	2(100.0)	-	2(100.0)
	영진위 모델*	-	-	1(100.0)	-	1(100.0)
	지자체 모델	1(50.0)	-	-	1(50.0)	2(100.0)
합계(빈도, %)		14(51.9)	8(29.6)	4(14.8)	1(3.7)	2(100.0)

* 설문 조사 당시 1곳의 센터의 계약 해지되어 임시로 배정되어 통계에서 제외함

[표 3] 지역미디어센터 모델별 인력현황

② 영역별 업무내용

영역	활동내용	적정인력
센터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센터 총괄 • 미디어센터 간 교류 및 협력 	1 (비상임 가능)

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총괄 • 직원 교육 및 인사관리 • 미디어문화 관련 정책 생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 사업홍보 및 쌍방향 소통 • 웹사이트 관리 및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리 	1~2
미디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총괄 • 유관기관 협력 • 미디어교육 정책 대응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교육 관련 정부 지원사업 수행 •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1~2
커뮤니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지원 사업 기획·운영 및 총괄 • 공간·장비 관리 • 영화관 및 상영장비 운영 • 상영프로그래밍 및 관객 관리 • 마을미디어단체·동아리 지원 • 지역 영화제, 영상제 등 행사운영 	2

[표 4] 지역미디어센터의 영역별 업무내용

③ 재교육 관련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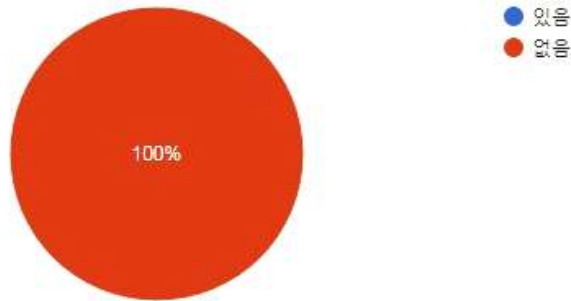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미디어센터 스태프를 대상으로 재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수요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10월 27일부터 11월11일까지 2주간, 구글설문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만 배포되었다. 응답자는 전국미디어센터협회의 회원센터 32개소 실무스태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응답자수는 35명이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중 현재 미디어센터 내에 스태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한 인원은 0명이었다. 미디어센터 스태프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꼭 필요하다, 필요할 것 같다)고 응답한 인원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1.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센터에는 스태프의 직무 내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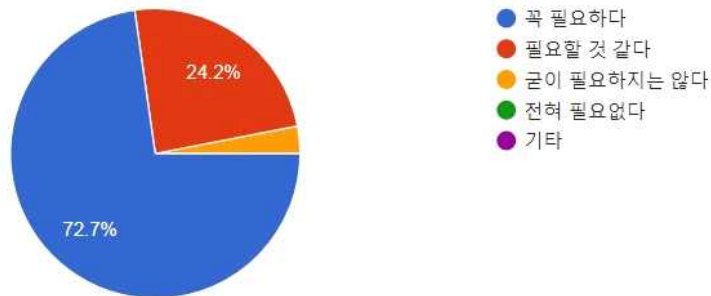
응답 33개



[그림 1]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1

없을 경우, 미디어센터스태프를 위한 공통의 보수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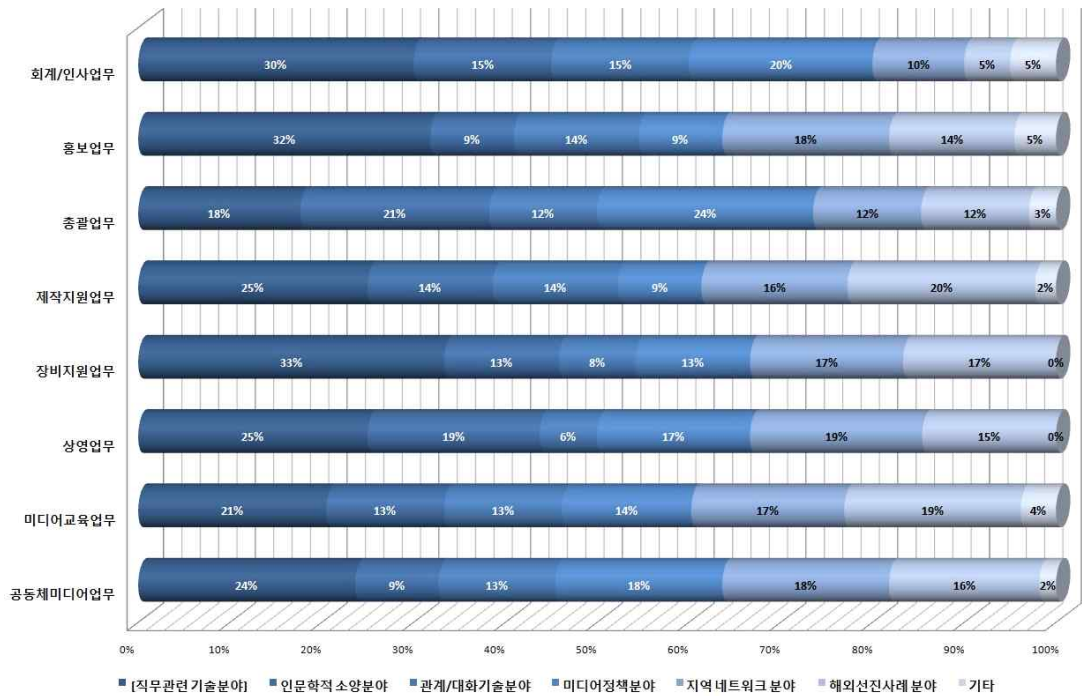
응답 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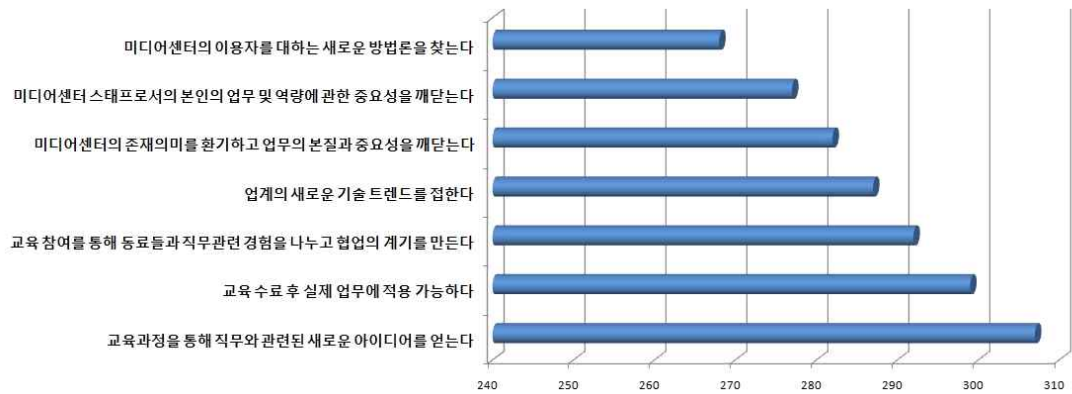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1-2

업무분야별로 교육을 원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미디어센터 종사자들 대부분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직무관련 기술분야’를 택했다. 특히 장비지원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무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욕구가 컸다. (총괄업무 분야 종사자는 ‘미디어정책분야’에 대한 교육욕구가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지역네트워크분야’ 및 ‘해외선진사례분야’에도 관심도가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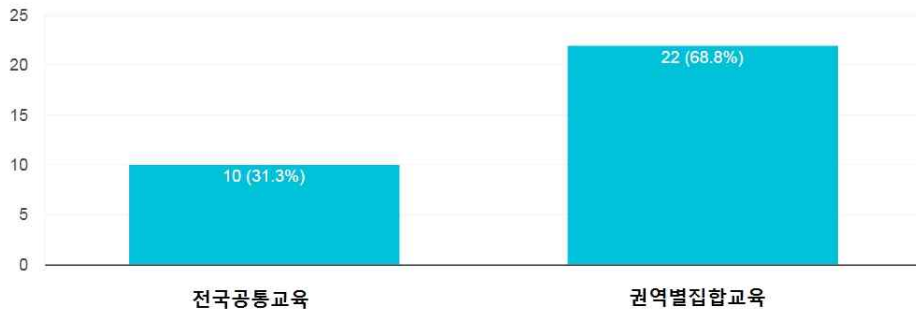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2
 응답자들이 교육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업무에 적용 가능하다’, ‘동료와의 협업 계기를 만든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접한다’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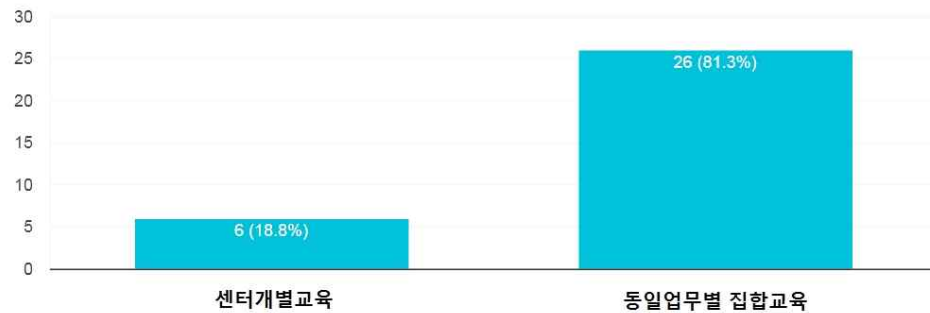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3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교육방식은 ‘전국 공통교육(31.3%)’보다 ‘권역별집합교육(68.8%)’, ‘센터개별교육(18.8%)’보다 ‘동일업무별집합교육(81.3%)’로 집계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기관의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지점이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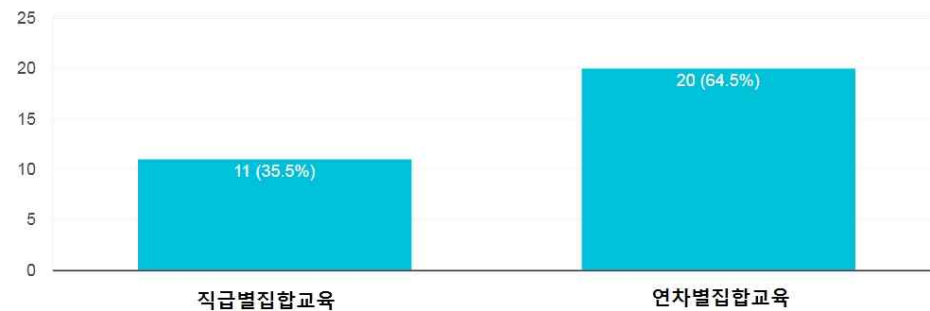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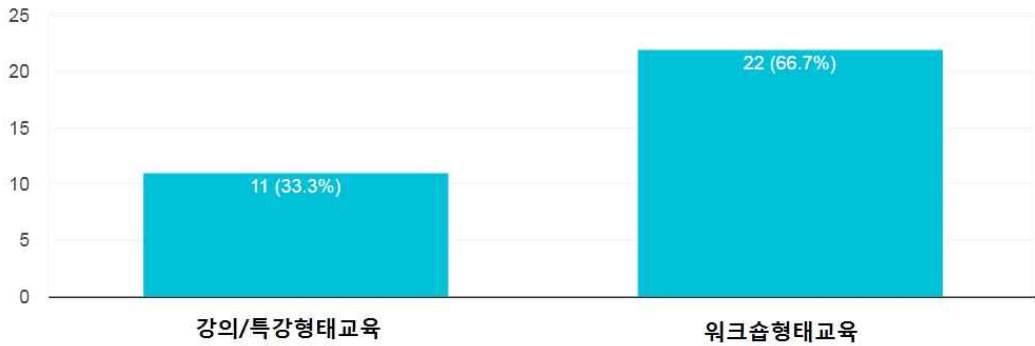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2

또 ‘직급별집합교육(35.5%)’보다 ‘연차별집합교육(64.5%)’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컸는데 이는 업무구분이 명확한 위계조직적 특성이 강하지 않은 미디어센터의 특성과 연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3

참여자들은 ‘강의/특강형태교육(33.3%)’보다 ‘워크숍형태교육(66.7%)’을 선호했는데, 정보량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 선호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지역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 중 문항4-4

2) 미디어교육 교·강사

① 미디어교육 교·강사²⁾의 정체성

미디어교육 교·강사는 미디어센터가 설정한 미디어교육 방향에 맞게 미디어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특히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중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의 경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제작강좌와는 달리 일관된 커리큘럼과 난이도로 교육 활동을 실천하기 어렵다.

미디어센터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공동체의 욕구에 따라 어떤 공동체에 집중하여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계층별/연령별 미디어교육, 마을미디어교육 등으로 특화시켜 미디어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는 교육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 미디어 활용도에 대한 이해, 이해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 개발 등 미디어교육을 설계, 실천하는 데 경험과 활동전문성이 필요하다.

미디어센터는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을 교육현장을 기획, 운영하며 전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운영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실천하는 미디어교육이 어떠한가는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의 결과가 어떠한가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단순히 ‘개별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자’나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파견 강사’로 사고하지 않는다. 미디어센터는

2) 미디어교육 교사와 미디어교육 강사를 통칭하는 용어. 유사한 표현으로 ‘미디어교육 교육자’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미디어교육 강사’라는 용어보다 교육적 전문성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미디어교육 교사’가 정확한 표현이나 ‘교사’라는 표현이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 ‘미디어교육 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미디어센터 등 사회교육 영역에서 미디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미디어교육 교사’ 혹은 ‘미디어교육 강사’로 혼용하여 사용하며, 이 연구에서도 미디어교육 교사 혹은 미디어교육 강사 모두를 아우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단,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역할 부분에서는 단일교사 체계(1교실 1교사)로 운영되는 학교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미디어교육 교사’라는 용어 사용을 전제로 ‘주교사’, ‘보조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질 높은 미디어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과정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미디어센터의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며, 미디어교육 교사의 성장 이 곧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②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역할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는 총 세 그룹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미디어 관련 전공자 혹은 미디어 제작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교육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보조교사 활동을 하는 그룹이다.

보조교사의 경우 활동 경력이 전혀 없거나 1년 미만의 활동 경력을 가진 교강사들이 많다. 보조교사의 주요 역할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동을 사진 혹은 영상으로 기록하고 교육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참여자의 활동 과정 및 반응, 변화 지점 등을 관찰하고 교육 전반의 운영과 평가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디어교육 활동 경력이 있는 주교사 그룹이다.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이상까지 활동 경력이 다양하며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나 주되게 만나온 교육 대상 또한 다양하다. 특정 미디어나 특정 교육 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미디어교육 활동 경력이 많은 교강사일수록 활용 가능한 미디어 종류가 다양하고, 교강사가 경험한 교육 대상이 다양한 편이다.

주교사들은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스텝들과 함께 미디어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교사는 미디어센터에서 기획한 교육 방향에 맞게 참여자에게 적합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또한 교육 계획에 맞게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면서 교육단위와 미디어센터의 소통을 도우며,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보조교사와 역할을 나누고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이 실행된 이후 참여자 및 보조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주교사는 미디어교육을 기획, 실행, 평가 하는 과정 전반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주교사가 수행하는 역할들 간의 경중을 가리기는 어려우나, 미디어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교육 참여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여자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지, 참여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사용하는지, 참여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지 등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된다. 미디어센터에서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는 평가 설문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난다. 아래의 문서는 2015년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지역

미디어센터들과 함께 진행한 <토요미디어문화학교>³⁾사업의 참여자 평가 설문 양식이다.

2015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참여자 평가설문지

※ 다음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분량 평가 : 수업 시간과 비교할 때 교육의 양은 적당합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② 교육난이도 평가 : 전체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②-1 교육 내용이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간단히 써주세요.

2.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

① 교재재활용 평가 : 수업에 활용된 자료들은 교육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② 교육진행방법 평가 : 수업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②-1 진행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써주세요.

③ 의사소통과정 평가 : 교사와의 대화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③-1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변화되어야 할 점을 써주세요.

3. 교육환경과 운영 평가

① 교육 장소는 수업을 받기에 적당했습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3) <토요미디어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및 지역미디어센터가 실행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운영된 청소년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다.

② 교육을 위해 제공된 재료와 장비는 충분하였습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③ 교육과 관련된 안내와 공지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4. 교육만족도 평가

① 전체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1.아니다	2.아쉬웠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	-------	----------

② 교육에 참여한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미디어를 즐겁게 활용하는 경험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 (2)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예 아니오
- (3) 앞으로 나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4) 앞으로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후속 희망활동 참여 조사

① 후속활동(동아리 모임 등)이 있다면 참여하겠습니까?

- 예 아니오

②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습니까?

- 예 아니오

③ 이후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표 5] 2015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참여자설문지 양식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교사, 주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미디어교육의 실행 과정별로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4) 서울영상미디어센터(2015), 「미디어교육 교재-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이론」, 5장 미디어교육 교사의 역할

과정별 구분	역할	역할에 따른 업무수행
미디어교육 기획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	-참여자 특성 연구(생애주기별/공동체적 특성) -참여자 사전간담회(혹은 교육설명회) 참석 -참여자 사전 설문을 통한 개별 정보 수집, 참여자 욕구 분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자	-교육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적합한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표 및 콘셉트에 맞는 매체 선정, 교육 내용, 교 육방법, 교육 난이도 설정 -교육 커리큘럼 개발 -효과적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생산
미디어교육 운영 및 진행	교육활동의 조력자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활동 제안 및 안내 -교육 활동 보조 : 스토리텔링을 위한 화제의 제공 및 참여자 활동을 위한 주제 발굴, 기술적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활동 기록
	의사소통의 중재자	-교육 활동 시 참여자 의견 조율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진행 -교육 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 취 합, 교육 목표에 맞는 방향 제시
미디어교육 평가	교육 운영 및 참여자 반응에 대한 관찰자	-교육에 대한 참여자 의견 및 평가 경청 -참여자 반응 관찰 및 분석 -참여자 반응을 토대로 평가서 작성 -다음 차시 계획에 평가 내용 반영
미디어교육 이후 활동	안내자	-미디어 활동 멘토링, 선택적 후속활동 지원
	촉진자	-미디어활동 독려, 참여자 관계형성 유지에 기여 -지속적 미디어활동을 위한 조언 -공동체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표 6] 미디어교육 과정별 미디어교육 교사의 역할

미디어교육의 기획단계에서 교강사는 참여자의 삶과 미디어를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미디어교육 현장에 맞게 교육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이다. 미디어교육의 진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미디어를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자,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 교육을 계획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재자, 그리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세밀히 살피는 관찰자이기도 하다. 교육 기간이 끝나고 미디어활동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는 참여자 스스로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안내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③ 미디어교육 교·강사 활동 범위와 미디어교육 현장 조건의 변화

2012년 이후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의 종류와 장르를 벗어나 미디어 간 융합교육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중심성에서 탈피한 미디어교육은 사람간의 소통 구조 마련으로 교육방향이 재설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은 문화예술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교육의 폭이 넓어졌다. 영상제작교육과 연극, 사진교육과 미술, 라디오교육과 소리 등 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교육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미디어 교육’이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공동체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미디어중심성에서 벗어나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미디어를 운영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서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미디어교육은 주목하고 있다. 6)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학교미디어교육의 확장이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학교미디어교육은 꾸준히 확장해왔다. 일상적인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개인 미디어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2002년 이후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으로 대표되는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공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방과후 학교와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이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2014년 이후 최근 추세로는 학교 교육정책 변화와 맞물려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이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디어와 학교 교육 관련 정책기관, 지역교육청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별 학교 현장에서도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7)

미디어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현장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센터와 긴밀하게 협업을 이루며 교육을 실천했던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학교미디어교육 현장의 경우 학교의 교육 환경과 미디어교육 교·강사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이 실행되는 단위 시간을 학교 현장에 맞게 단축하거나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설정한 교육 목표에 적절한 참여자 인원수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교미디어교육 현장 실무자인 담당 교사와 교육 운영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5) 서울영상미디어센터(2015), 「미디어교육 교재-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이론」, 5장 미디어교육 교사의 역할

6) 서울영상미디어센터(2015), 「미디어교육 교재-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이론」, 1장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지형변화

7) 전북지역 학교미디어교육 준비위원회(2015),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위와 같이 다 분화 된 미디어교육 현장 속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특정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어떤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첫째, 미디어교육 교사는 새로운 미디어교육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역 내 저변 확대로 인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학습하고, 교육 참여자 별 조건에 맞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왔다. 물론 미디어교육 환경이 지금과 같이 바뀌지 않았던 이전에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다만,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속도가 전에 비해 빨라졌으며 미디어센터를 이용자그룹의 미디어 접근성이 전에 비해 높아지면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장르를 융합하여 통합 수업안을 고안하거나 미디어 분야가 아닌 연극, 음악, 만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학교 교과 활동으로 미디어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단순히 교육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든다. 끊임없이 미디어와 교육 참여자. 그리고 미디어교육 현장에 대해 학습하고 탐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운영주체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교육 현장이 예전에 비해 다양해진 것과 연관이 있다. 미디어센터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사업보다 기금사업을 운영하거나 공동체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졌다. 또한 자유학기제 혹은 교과 연계 학교미디어교육과 같이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이 늘어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교육 운영을 위한 미디어센터-미디어교육 교·강사-미디어교육 현장의 협력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과의 접촉면이 맞닿아 있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 되고 있다. 기존에도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주요 역할이었던 교육 참여자들과 운영진들의 소통을 매개하는 것에 더해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 현장 실무자들의 의사소통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셋째, 미디어교육의 기획자 및 실무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정한 활동 경력을 가진 미디어교육 교·강사들 중에서 특정 교육 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활동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미디어교육 활동에 대한 자기 전망을 세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교육 기획의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교·강사 개인 혹은 교·강사 모임을 통해 자신이 활동할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미디어센터와 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다른 분야의 기금사업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활동의 형태도 협동조합이나 연구모임, 혹은 마을 단위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신규 공동체 설립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렇게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기획의 주체가 되어 독립적인 미디어 교육 활동을 할 경우,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 마련부터 기획, 운영, 실행, 평가의 전 활동 과정에 필요한 미디어교육 관련 행정 실무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미 일정한 단계까지 성장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경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교육 현장 발굴을 위해 ‘미디어교육 기획자 및 실무자’로서의 폭넓은 역할 수행이 부각되고 있다.

④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현황

이처럼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활동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미디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 자료를 찾거나 만들어야 하며, 변화하는 교육목표와 방향에 맞게 교육 실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상호교류하면서 교육 노하우를 나누고 더 나은 미디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대부분의 미디어센터의 경우, 예산 안배의 문제나 사업 실행의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그러한 지원이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미디어센터별로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디어교육 현장 조건에 맞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사례를 정리함에 있어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경력에 따른 욕구가 반영 되었는가, 재교육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성장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재교육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재교육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특히 교·강사 성장 및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 부분) 등이다.

사례 1) 지역미디어센터 강사워크숍 (공동 및 개별사업)

강사워크숍은 여러 미디어센터가 연합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사례와 미디어센터의 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으로 진행한 사례로 나눌 수 있다. 공동사업의 경우

2013년~2014년 (사)전국미디어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20여개의 미디어센터의 청소년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참여했다. 개별사업으로 진행한 경우는 순천영상미디어센터와 전주시민영상미디어센터 영시미에서 2017년 진행된 강사워크숍 사례이다.

○ 지역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교육 공동사업 강사워크숍 (2012년 청소년 주말 미디어교실강사워크숍, 2013~2014년 토요일미디어문화학교 강사워크숍)

- 참여 대상 : 토요일미디어문화학교에 참여하는 지역미디어센터 활동 교·강사

- 주요 내용 : 강의 및 그룹식 분임 토의

: 참여식 강의 : 청소년미디어교육 수행 역량 증진을 목표로 미디어교육에서 응용 가능한 활동내용 및 활동방법을 주제 특강을 통해 교육함. 강의 주제) “함께 이야기하는 청소년 인권”, “우리 삶 속의 불만과 편견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을 상상 플레이숍-우리가 모이면 마을이닷!”, “청소년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방법, 모험놀이 상담”, “애니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감각놀이-숲만들기”, “이미지스토리텔링-자발적 수다를 위한 기법”

: 분임 토의 : 교·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켜 이후 진행되는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룹을 나누어 분임 토의함.

- 특징 : 워크숍에 참여하는 교·강사들의 경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못함. 청소년미디어교육이라는 특수한 교육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됨. 다만 사전 설문을 통해 참여 교·강사들의 욕구를 워크숍 기획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해당 사업 안에서 교육 내용이 이후의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된 사례가 확인됨.

예) 2012년 인권 특강 후 일부 교육프로그램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이 진행됨.

- 효과 : 워크숍(참여식 강의 및 분임 토의)이라는 형식을 통해 교·강사들의 교류가 가능해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강사들이 미디어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교육 현장의 고충을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줌. 이러한 상호 교류와 관계 형성은 이후 권역별 공동사업을 원활히 진행한 밑거름이 됨.

○ 순천영상미디어센터-2017년 강사워크숍

- 참여 대상 : 순천영상미디어센터 활동 미디어교육 교·강사
- 주요 내용 : 역량강화 활동, 교육 사례발표, 수업 연구로 프로그램 구성
 - : 역량강화 활동 : VR촬영 실습, 교육방법론 강의
 - : 2016년 교육 사례발표 : 두드림 테마 교육(“블로그 교육”, “페이스북 활용 교육”, “스마트폰 UCC제작”), NIE어린이 미디어교육(신문제작 및 발행),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 : 수업 연구 : 활동 연차 및 미디어장르 다양하게 모듈구성, 장르 융합 수업 연구, 연구내용 2017년 사업에 반영
- 특징 : 기존에 미디어센터와 꾸준히 활동해왔던 경력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1월에 1박 2일로 강사워크숍 진행함. 특강, 사례발표 등 일반적으로 워크숍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형태가 포함됨. 다만 연구수업의 경우, 교·강사 각자의 전문 미디어장르와 미디어교육 연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섞일 수 있도록 모듈을 구성하여 장르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였음. 이로 인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교류가 가능하였음.
- 효과 : 교·강사들의 미디어 능력 향상, 새로운 장르 융합형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및 교수법 개발, 개발된 교육안은 이후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으로 연계, 실행

○ 전주시민영상미디어센터 영시미-2017년 강사워크숍

- 참여 대상 :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
- 주요 내용 :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토의), 교수 설계 이해(컨설팅)
 - :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토의)- 학교 교육의 특징과 한계, 단기(캠프)교육의 의미와 효과적인 교육방법
 - : 교수 설계 이해-학교미디어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결과물과 평가 원고를 공유하고 이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커리큘럼을 수정, 보완해본다.
- 특징 : 전주시민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미디어교육을 워크숍의 주제로 함. 2016년 학교미디어교육에 참여한 교·강사들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학교미디어교육에 대한 워크숍이 기획됨. 미디어교육 교·강사 각자가 경험한 학교미디어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의

- 특성과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교육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워크숍.
- 효과 : 학교미디어교육 관련 미디어교육 교·강사 개인 역량 강화, 교·강사 간 교류 촉진

사례2) 지역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보수교육(2015~2017년)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 혹은 미디어활동가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두 가지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보수교육과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자치활동이 융합된 형태로 연간과정으로 개설된 미디어교육 교·강사 지원 사업이 있다. 두 번째 사례로는 2016~2017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의 서울시 마을 미디어활동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직무교육이 있다.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자치활동, 보수교육

- 참여 대상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가는 1~6년차 미디어교육 교·강사 (프로그램별로 활동연차 고려하여 기획 진행함)
- 주요 내용 : 교·강사 모임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과 미디어교육 이론 특강으로 구성
 - : 미디어교육 교·강사 자치활동- 미디어교육 사례 공유, 교육 평가 토론, 교육 연구/개발
 - 활동 주제) 수업연구, 영화읽기
 - : 보수교육-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특강 형태로 진행
 - 강의 주제) “미디어교육 이론 특강”,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특강”, “영상이론의 이해”, “시각예술의 감상 및 해석의 심리적인 접근-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자 이해”, “대화, 소통, 참여,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특징 : 2015년~현재로 기간을 한정하여 조사함. 해마다 활동 가능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활동연차와 욕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함. 크게 교·강사 자치활동 지원과 보수교육으로 내용이 나누어짐. 자치활동의 경우 미디어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자발적 교류와 활동을 독려하는 형태이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멘토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보수교육의 경우 참여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활동연차를 고려한 주제 선택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교육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둬. 정기적

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

- 효과 :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소모임(수업연구모임, 영화읽기모임)을 통해 공동체성 향상,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미디어교육 이론 및 교수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됨. 또한 미디어 기술특강을 통해 미디어 작업자로서의 역량을 증진함.

○ 미디어엑트-마을미디어활동 직무교육, 활동가 학교

- 참여 대상 : 마을에서 마을미디어를 시작하려는 사람, 마을미디어 활동의 많은 요소 중 특정한 부분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 마을미디어 활동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사람(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주요 교육대상이 아님, 마을미디어교육 활동가가 주 교육대상)
- 주요 내용 : 2016년 직무교육(총 4개 주요 분야별 교육)과 2017년 활동가 학교는 강의, 사례발표, 참여활동이 결합된 형태의 재교육 과정임.

마을미디어활동 직무교육(2016)

- 지역 : “주민이 마을미디어의 힘”, “오늘도 마을에서 라디오를 만들어요”, “무조건 남는 장사 비법-나, 공동체, 미디어”, “마을미디어, 모두의 목소리를 담는 도구”
- 기술 : “공개방송 기술워크숍”, “마을라디오 생방송/생중계 체험”
- 홍보 : “손쉽게 관리하는 반응형 홈페이지 만들기”
- 네트워크 : “청년활동가 선배에게 듣는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 활동가 학교(2015)

- 기본개념 : “마을미디어를 통한 미디어 기본권 이해”
- 교육 : “마을미디어를 통한 미디어 기본권 이해”, “모두가 참여하는 라디오 체험”
- 참여 : “마을미디어에 청년 유입시키기”, “마을관계망을 통한 마을미디어 활동 기획하기”
- 콘텐츠 : “유일무이 독특 콘텐츠 만들기”, “트렌디한 마을 콘텐츠 만들기”
- 홍보 : “간단하고 편리한 마을미디어 홍보생활”
- 사례발표 : “마을신문으로 살아남기”,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한 자원발굴”
- 조직운영 : “효과적인 마을미디어 조직 운영 방법”, “후원회원 100명 조직하기”
- 워크숍 : “나도 팀 있다”

- 특징 : “마을미디어활동”에 적합한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함. 다양한 미디어와

교육대상을 만나는 주체인 미디어교육 교강사와는 달리 마을미디어교육의 주체는 마을의 구성원 혹은 미디어 활동가가 교강사의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내용 중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재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기술 과정과 주민 참여적 체험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임.

- 효과 : 새롭게 마을미디어활동을 꾸리거나 마을미디어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음. 마을미디어활동의 경우 미디어교육보다 미디어의 지속적 운영 부분에 활동 초점이 맞춰져 있음. 즉,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주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교육에 대한 재교육 방식이 콘텐츠 제작 기술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확인됨. 장점으로 지역별 특성이 매우 중요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활동 방식 및 미디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치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마을미디어라는 고유 영역에 적합한 방식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강점이 있음.

사례3) 미디어교육 교강사 활동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교강사 활동 지원 사업은 교강사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모임의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거나 미디어 활동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현물 지원이 많았다. 하지만 미디어교육 교강사 활동 지원 사업은 미디어교육 모임, 미디어교육 연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실행 등을 직접 사업비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지원 “씨앗사업”의 경우, 미디어교육 교강사 모임을 공모하여 운영비 혹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미디어센터의 사례로는 성남미디어센터와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CoP(Communities of Practice)⁸⁾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있다. 성남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미디어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학교 교사, 미디어 교강사 그룹, 미디어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 사업이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은 마을미디어사업에 필요한 공통 영상제작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지원 “씨앗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전미협

주관 2014 지역미디어교육센터 운영사업)

- 참여 대상 :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개인 혹은 그룹) 9팀
- 주요 내용 : 미디어교육 교·강사 활동 사례 공모 및 활동비 지원, 사례집 발간 및 교류회 진행
 - : 미디어교육 교·강사 활동 사례 공모 및 활동비 지원 :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을 위한 활동비, 미디어교육 연구비, 미디어교육 관련 프로젝트 진행비 등을 지원
 - : 미디어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 및 교류회 진행 : 교류회에서 각 팀별 부스 운영
- 특징 : 미디어교육 교·강사 개인 및 그룹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한 뒤 공모 과정을 통해 활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강사들의 경력과 욕구가 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라 판단됨. 사업 기획 단위에서 직접 각 그룹별 미팅을 통해 각 팀별 교류회 준비를 위한 현황 조사를 면담으로 진행하여 참여 규모, 내용 등을 조정하여 실행함.
- 효과 :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교·강사 팀들의 경우 활동을 독려하고 지속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됨. 팀별 자율 활동이 가능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기관에서 정해진 틀에 맞추지 않고 미디어교육을 자유롭게 사고하고 실천함. 다만 지원 기간이 짧았고, 교류회가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되어 활동 지원 이후의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성남미디어센터-미디어교육 연구 활동 지원

- 참여 대상 :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강사(경력강사)
- 주요 내용 : 전문가 특강, 과목별 소모임 운영, 현직교사 자문회의, 시범교육 진행
 - : 전문가 특강 : 교과연계 미디어교육 사례, 창의프로그램 개발 사례
 - : 과목별 소모임 운영 : 과학/사회/통합교과 총 3팀으로 운영, 강사 자율모임 진행
 - : 현직교사 자문회의 : 관내 초등 교사에게 교과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한 커리큘럼 자문
 - : 시범교육 진행 : 성남미디어센터 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한 커리큘럼을 3개 학교에 시범 운영

- 특징 : 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의 특수성이 내용에 잘 반영됨.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운영한 2015 토요미디어 문화학교 사업을 활용하여 장기간 교·강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계별 활동 중심의 교·강사 지원이 이루어짐. 연구 활동비 및 시범교육 강사비 지급됨.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사업이 토요문화학교 사업과 통합되면서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효과 :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연구 및 실행 역량 강화,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학교미디어교육 저변 확대, 연구과정을 실천 해봄으로써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 수원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교육 연구 활동 지원

- 참여 대상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강사(경력강사), 미디어센터 스태프
- 주요 내용 : 마을미디어 현황분석, 마을미디어 영상교육 교과과정 개발
 - : 마을미디어 현황분석 : 전국 마을 미디어 영상교육 및 활동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교과목 선정 및 교육 목표 도출
 - : 마을미디어 영상교육 교과과정 개발 : 수업계획서 및 학습지도안 개발, 수업방법 및 활동 제시
- 특징 :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교육’에 적합한 영상분야 교과과정 개발에 초점을 둬. 미디어센터 스태프를 포함하여 3인이 연구에 참여. 교·강사에게는 연구 활동비가 지급됨. 구체적인 분야 제시와 주제 접근, 그리고 소규모 운영 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연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했다는 장점이 있음. 더 많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효과 : 마을미디어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영상분야 커리큘럼 개발(연구 자료집으로 정리),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미디어교육 연구 기틀 마련, 미디어센터 내 강사 교류 촉진

8) CoP(Communities of Practice) : 『실천공동체 - 지식창출의 사회생태학』(학지사, 2007), 에티엔 웅거(Etienne Wenger)에서 언급된 개념. 주로 ‘실천공동체’라고 해석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실천’의 의미보다 기업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관리’의 의미에 가깝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공식적·자발적·소규모 연구 모임. 구성원들의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지식의 창출·전파·공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풀뿌리 조직 단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식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진 기업에서는 지식 공동체(CoP)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CoP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CoP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사례4) 기타 재교육 사례

지역미디어센터 외 미디어교육 혹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교·강사들을 양성 및 재교육하는 두 가지 사례를 정리하였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에서 청소년의 영상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 개설한 페이지가 ‘유스보이스’이다. 유스보이스에서는 영상창작경험을 원하는 어린이, 청소년그룹과 대학생을 매칭하여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왔다. 몇 년 전부터 미디어교육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미디어작업자들이 미디어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일련의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전임강사제’를 통해 문화예술강사들의 교육과 관련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였다.

○ 다음세대재단-유스보이스 미디어교육자 발굴 및 양성 지원 사업

- 참여 대상 :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자 또는 창작자
- 주요 내용 : 슈퍼바이저의 경험과 조언, 최대 350만원 교육 실행비 지원, 교육대상/ 예산 스스로 결정
 - : 5개월간 청소년 미디어교육 진행 : 청소년 모집, 교육 실행 (멘토링)
 - : 미디어교육 결과발표회 : 교육자들의 활동경험 공유
 - : 미디어 컨퍼런스 : 유스보이스 활동 결과 공유
 - : 미디어교육 워크숍 : 기존의 미디어교육자 만나기, 재교육
- 특징 : 청소년미디어교육이라는 명확한 대상과, 미디어 창작자를 교육자로 양성하거나 기존의 미디어 교육자를 성장시키려는 목표가 있음.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기획, 실행하는 역량에 대해 훈련할 수 있음. 모집인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자료 제출 및 면접을 통해 선택 지원함.
- 효과 : 미디어교육자를 양성하여 유스보이스 페이지에 등록, 교육자로서의 발전과 역량 강화,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 교육 커리큘럼의 질을 높임.

○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 전임강사 시범 사업(2016년도 전문인력양성사업)

- 참여 대상 : 미디어,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교육 강사 3명 (교육경험 및 전문성 갖출 것)
- 주요 내용 : 교과연계 통합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실행교안 개발, 통합문화예술교육 진행
 - : 교과연계 통합문화예술교육 연구 :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미술-무용-영화)

: 교과연계 통합문화예술교육 진행 : 미디어센터 방학특강(4개 강좌), 아카데미 유아 여름방학 예술학교(1개), 자유학기제(1개) 강의 진행

- 특징 : 학교미디어교육(초등·중등)에 적용 가능한 통합문화예술교육 연구과정임. 사전 제출 서류, 면접과 수업시연을 통해 선발. 선발된 강사에게는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며, 9개월 간 주 2회 8시간 근무, 1일 3시간 강의 진행, 강의 외 시간은 커리큘럼 개발 등 연구업무 수행.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한 회로 마무리됨.
- 효과 : 예술 강사의 자기발전과 성장, 교과 연계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안 개발, 전임강사 간 관계 형성(강사모임)

⑤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현황 분석

미디어센터에서 실행된 이전 사례들의 공통점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교사들의 개별적 활동 상황(활동연차에 따른 성장욕구)보다 미디어센터 주요 사업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재교육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센터가 설정한 교육대상의 특수성에 맞추어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노하우를 교류하고 역량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우 청소년미디어교육(창의교육, 자유학기제 등)을 비롯한 학교미디어교육에 대한 재교육 사례가 많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 지원 예산을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렇게 사업에 중심축을 두고 재교육을 사고하는 것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활동 역량을 좁게 한정짓는 것과 같다. 지역미디어센터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었으나 미디어교사를 미디어센터가 기획한 교육을 단순히 실행하는 주체로만 한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미디어교육 현장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역량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정 사업 중심의 재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교·강사가 미디어교육의 개발자이자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활동 연차를 더해갈수록 본인들이 경험한 현장에 맞게 단계별 성장 그림과 활동에 대한 전망을 그릴 수 있어야 지속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연차가 높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많아야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로 특강 혹은 체험형 워크숍 등 단발성 사업이라는 형식상의 한계가 크다.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지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술특강과 리터러시 특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워크숍도 체험형의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다. 즉, 미디어교사의 경험과 주체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방식의 재교육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미디어센터의 사례 중에서 Cop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주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예가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교·강사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연차가 오래된 미디어교육 교·강사일수록 재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다. 가장 재교육의 혜택을 많은 받는 교·강사 그룹은 신규 그룹이다. 수업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 그것을 적용해보는 방식의 재교육은 미디어센터 강사워크숍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양성의 기초 과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룹은 활동 연차가 낮은 교·강사그룹이다. 활동 연차가 낮은 교·강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연차가 높은 교·강사들과 수업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나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재교육이 성장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 못하여 교·강사들이 일정 수준 교육자로서 성장한 후에는 더 나은 미디어교육 활동에 대한, 혹은 교·강사로서의 성장에 대한 자기 전망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에게 단계별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센터의 미디어교육 정책과 맞물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디어센터가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교·강사의 성장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미디어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방안

1. 최근 지역문화인력 양성의 방향과 사례

1) 지역문화 인력 양성 정책

- 한국 사회에서 문화전문인력에 관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초창기에는 주로 산업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되었고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존재했음
- 지역과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크게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매개에 걸쳐 실질적으로 활동과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인 정책 예산의 수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했음
- 2014년 1월 28일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 제도화되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1항)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지역문화 진흥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그 가치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주민의 고령화와 도시 쇠퇴 등으로 인하여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문화사업 추진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해서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⁹⁾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15년에 처음 시행됨.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양성사업

①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2월 개정된 법에서는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명칭을 '문화예술

9)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교육사'로 개정

- 201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총 5,586명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 현행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활동으로 규정하고, 2개 등급으로 구분함

- 1급은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 시설에서의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등의 활동 가능(기획자)

- 2급은 학교, 주민센터 등의 영역에서 교육강사로 활동 가능(강사)

- 2급 자격을 따고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실무경력이 인정되어야 1급 자격의 취득이 가능한 구조로 강의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 경험을 축적한 이에게 기획인력으로서의 활동으로 영역 확장을 하도록한 구조

구분	학력 및 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급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급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 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표 7]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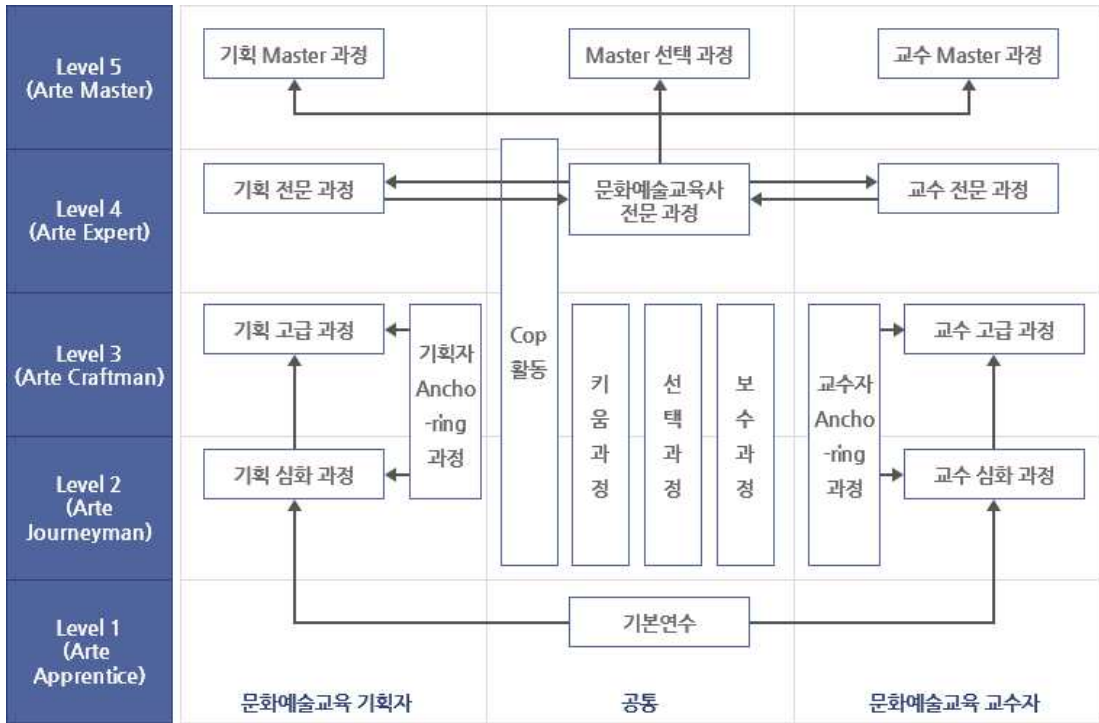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며, 1급 2개 영역 180시간, 2급 3개 영역 720시간 이상을 이수

구분	교육 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1급	직무소양	1) 문화정책 사례연구 2) 예술경영(행정) 3) 문제해결기법 4)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 5) 한국의 문화와 미의식	90시간 (3과목 이상)
	예술교육 전문성	1) 문화예술 교육과정 설계 2) 문화예술교육사례 워크숍 3) 예술치유 4) 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교육 6)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	90시간 (4과목 이상)
2급	교수역량	1) 교육학 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선택 2과목)	60시간(4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선택 5과목)	150시간(10학점)
	직무소양	1)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선택 1과목)	30시간(2학점)
		2)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선택 1과목)	30시간(2학점)
예술 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30학점)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표 8]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위한 연수과정을 아르떼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아르떼 아카데미의 연수프로그램은 5단계의 레벨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1단계 기본 연수를 시작으로 기획과정과 교수과정으로 나뉘어지며 기획과정은 기획심화과정→기획고급과정→기획전문과정을, 교수과정은 교수심화과정→교수고급과정→교수전문과정을 거쳐 각각의 마스터 과정으로 이어짐



[그림 9] 아르떼 아카데미의 연수프로그램

② 무대예술전문인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부설 기구인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은 무대예술 전문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무대예술전문교육은 한국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무대예술계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 환경 변화에 맞는 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 무대기술전공분야의 창작역량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수요자 요구 및 수준에 맞춘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음
-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	시행일 (기간)	대상	수업료	현장 연계성
기본이론	무대조명 이해	2014. 4. 23 - 4. 25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무대장치 이해	2014. 5. 14 - 5. 16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무대음향 이해	2014. 5. 21 - 5. 23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기술개발	조명콘솔 이해	2014. 6. 11 - 6. 13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음향콘솔 이해	2014. 6. 24 - 6. 27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3박기준)	○
	조명기술	2014. 7. 8 - 7. 11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2박기준)	○
	음향기술	2014. 7. 23 - 7. 25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장치매달기	2014. 9. 16 - 9. 19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3박기준)	○
디자인	무대조명 디자인	2014. 8. 5 - 8. 8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3박기준)	○
	무대음향 디자인	2014. 8. 26 - 8. 29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3박기준)	○
	영상기술과 프로젝션 디자인	2014. 11. 4 - 11. 7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3박기준)	○
문제해결	무대기계시스템 문제해결	2014. 3. 12 - 3. 14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무대음향시스템 문제해결	2014. 3. 19 - 3. 21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무대조명시스템 문제해결	2014. 6. 17 - 6. 20 (4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120,000원 숙박비 : 60,000원 (3박기준)	○
기초전공	공연장 조성 실무	2014. 4. 16 - 4. 18 (3일)	무대예술계 종사자	교육비 : 90,000원 숙박비 : 40,000원 (2박기준)	○

[표 9] 아르크예술인력개발원 무대예술전문교육 세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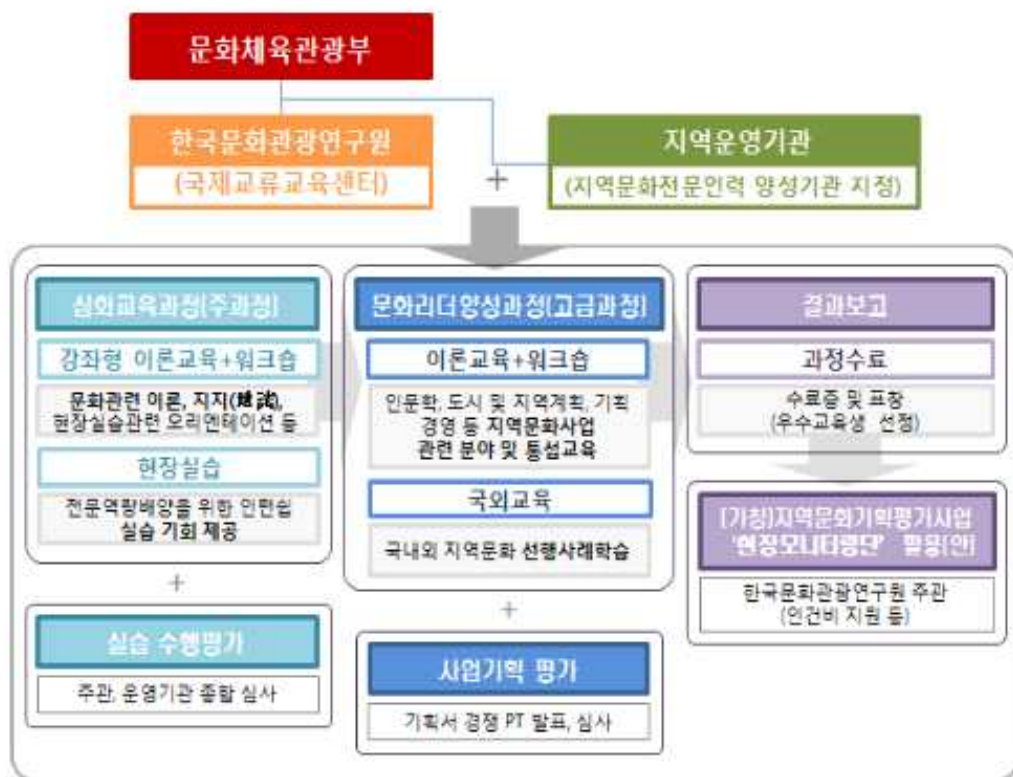
③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 추진 목적

-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인력자원을 발굴하여, 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양성·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

○ 추진체계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체부 주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 주관하며 전국을 5대 권역(경인, 충청, 전라, 경상, 제주)으로 나누어 지역의 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하여 지역특색에 맞게 과정을 운영
- 지역의 인력양성기관은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구성된 심화교육과정을 진행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고급과정인 문화리더과정을 진행



[그림 1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3) 교육과정 구성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은 문체부의 공모를 통해 지역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지역운영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진행(이론과정 3개월, 현장실습 2개월)

- 교육과정의 종료 단계에서 지역운영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주관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문화리더과정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운영기관에 대한 교육결과에 평가를 실시

4) 교육과정 운영기관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 및 내용의 충실성
 - 운영계획 및 체계의 적합성
- 운영 기관의 실적 및 역량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의 전문성
 - 운영인력 구성 및 수행능력
 -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지역 환경, 시설 등 기관여건 등
- 교육과정의 전문성
 - 교육과정의 편성 적절성
 - 현장실습 계획의 충실성
 -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성
- 사업의 효과성
 - 교육대상 선발방법(과정)의 적절성 및 홍보방안
 - 전문인력 양성 후 지역 내 활용방안, 네트워킹 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권역내 수요 추정의 적절성

5) 교육의 대상자

- 지역의 문화관련 전공자, 문화활동 경력자, 문화이모작 등 관련교육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함

6) 교육의 내용

① 심화과정

- 강좌형 이론교육, 워크숍 및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간은 총 5개월(이론과정 3개월, 현장실습 2개월) 소요

- 강좌형 교육 및 워크숍 : 이론교육, 현장사례지 방문교육, 워크숍 등 추진(강좌형 교육 시수 : 총 52시수 이상, 10주 내외)
- 워크숍 : 강좌형 교육기간 중 2회(1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
- 현장실습 : 문화예술단체·기관, 문화사업 현장 등에 배치되어 현장실습 활동 추진(현장실습 기간 : 주당 20시간 이상, 8주 내외)
- 강사진은 멘토강사, 특강강사, 사례교육 강사로 구분
 - 멘토강사 : 특강사례들을 포함하여 전체 과정을 끝고 가면서 전체 의미 부여, 해석 및 개념잡기 코칭, 교육생과 소통
 - 특강강사 : 유명강사 및 사례중심의 성과와 과제 발표
 - 사례교육 : 사업이 검증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례 중심, 성과와 과제 (성공, 실패사례, 한계요소 짚어내기)
- 심화교육과정 강좌형 교육 수료 후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문화사업 현장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지역문화 기획 실무 능력 배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일정시간 근무, 배치
 - 지역문화사업, 축제 등 현장 활동인력으로 참여

② 문화리더과정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심화교육과정 수료자 중 우수 수료자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3박4일의 국내 집합 교육과 4박5일의 국외 현장교육을 시행하며 우수 교육생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의 표창 수여
- 인문학, 정신문화, 도시 및 지역재생, 문화기획 경영 등 지역문화사업 관련된 통섭교육 도입
- 지역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중심
 -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역량 있는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적극 활용 예정
 - 예산작성 실무, 법제도, 마케팅, 홍보, 커뮤니케이션 스킬, 국내외 사례 연구, 현장방문 등 실무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 구성



[그림 11] 문화리더과정 교육 프로세스

- 문화사업 기획서 작성실무 워크숍을 통해 사업 실행계획 수립

2. 미디어센터 스태프

1) 방향 및 기본 목표

- ① 현 시기, 지역미디어센터계(界)가 확보해야 할 역량을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
2002년 최초 미디어센터 설립 및 2005년 지역미디어센터 본격설립 이후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추진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스태프의 역량 강화’는 지역미디어센터계가 현재 부터 가능한 빠른 시기 내 확보해야 할 여러 층위의 역량 중 하나임.
즉, 지역미디어센터의 정책을 재구성·수립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인 현재,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차원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안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상향식 정책추진체계, 예산·법제 등 지속가능한 구조, 적합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핵심 자원-실행주체로서 ‘스태프’의 종합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② 공유와 협업을 통한 스태프역량 강화 체계 마련
공급형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 간, 지역미디어센터 간 지식·자원의 공유를 통해 스태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를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지역미디어센터계에 스태프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③ 가설로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한 보완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운영사례가 전무하며, 특화된 연구역량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이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이 개발과정에 포함된 방식으로 추진함. 단, 현재 권역(광역)별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추진 체계(방통위 광역형 지역미디어센터 및 문화부 기초형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추진) 재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 개의 광역 내 지역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④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로써 자존감 및 활동의 동기부여
미디어센터 스태프의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늘 주창되어 왔음에도, 체계적 진행은 전무했음. 대부분의 미디어센터 스태프는 현장에서의 경험만으로 직무적 기술을 익히고 있고, 때때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인적인 의지와 열정에 기대 해결해왔으며, 이는 활동동기의 재생산을 취약하게 하였고 정서적 소진을 야기함. 이에 스태프에게 정서적 고양감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의지를 다시 점화시키고, 점화된 의지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함.

2) 필요역량과 프로그램 구성방안

- ①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의 정의

당 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전제로서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 문화미디어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의 맥락 속에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의 취지를 이해하고
- 해당 지역미디어센터의 설립배경과 운영전략에 대해 공유하며
- 미디어교육·창작지원·공동체상영·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함으로써
- 해당 지역의 주민·공동체의 문화·미디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 공공영역의 전문적 활동가

②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 _ 실무자의 필요역량

○ 실무자 필요역량 및 내용 개괄

구 분		주요내용	방 식	비 고
정책 역량	필수	① 지역미디어센터 정책	- 지역미디어센터의 경과·현황·비전 - 미디어교육·공동체미디어 등 유관정책	강의 및 토론
		② 문화정책과 미디어정책	- 문화 및 미디어 정책의 맥락에서 본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의 이해 - 문화 및 미디어정책 이슈	강의 및 토론
	선택	③	- 정책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문화·미디어활동의 트렌드·동향 등을 고려한 내용·방식을 선택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정책·사례 등 생활정책에 대한 강의, 현장 방문 - 메이커 운동, 인디음악 운동, 독립영화운동 등의 취지·현황·사례 등 유관 활동에 대한 강의 또는 현장 방문 - 관련 강의·컨퍼런스·세미나 등 참석	
직무 별 역량	필수	④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사업 기획·운영	- 직무별 진행이 아닌, 통합 프로그램 진행 - 발표준비+사례발표+공동기획+상호학습+멘토링 등 복합적 활동
		제작지원	제작지원 사업 기획·운영	
		상영지원	상영 사업 기획·운영	
	선택	⑤ 미디어 기술 동향	사업 관련 미디어 기술 동향·사례	강의 등
		행정·회계·홍보	조직·사업운영 등을 위한 역량	강의 등
		민주적	인권·소수자 감수성, 노동·복지 등	강의 등

	조직운영		
	기 타	각 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역량	강의 등

[표 10] 미디어센터 실무자의 필요역량

- 정책역량 : 지역미디어센터 및 문화·미디어 정책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지자체) 및 지역미디어센터의 목표·운영 전략에 대한 시야확보 및 내부 구성원 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위 표 중 선택③의 경우,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직무별 역량 : 가장 대표적·일반적 사업분야인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상영지원을 필수분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미디어관련 기술 및 시설·조직 운영을 위한 별도 과정을 선택으로 별도 포함.
- 미디어기술 분야 강의의 경우, 특강과 같은 일회성 단기 교육으로 관련 전문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 이에, 워크숍의 특강으로 포함하되, 지역미디어센터의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유통 관련 기술동향 및 트렌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차년도 진행될 년단위 스태프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속 특강방식 또는 미디어기술 분야 특화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센터 스태프 중 미디어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 전문가가 다른 미디어센터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교육(공유)하는 체계를 고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활동경력에 따라 필요역량을 구분 설계할 수도 있으나, 재교육 사업 시행 사례가 전무한 점, 연차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교육 대상 인원규모가 크지 않은 점, 센터 내 스태프 간 공유·상호학습을 통한 재교육·역량강화를 촉진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통합 진행함.

③ 책임자 필요역량별 내용 구성

- 위 지역미디어센터 스태프 중, 해당 센터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상임센터장, 사무국장 또는 운영팀장(사무국장직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실무자 필요역량 및 내용 개괄

구 분		내 용	방 식	비 고
리더쉽	필수	① 조직운영 역량 퍼실리테이션, 동기부여, 조직 문화 등	강의+사례발표+상호학습+멘토링	
		② 정책역량 해당 지역(지자체) 정책현	사전조사+발표+상호학	

			황	습+멘토링	
비전수립 역량	필 수	© 비전 점검 및 수립	해당 센터 비전 점검 및 수 립을 위한 워크숍	사례발표+상호학습+멘 토링	

[표 11] 미디어센터 책임자의 필요역량

- 책임자는 대부분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로 기본적인 사업기
확운영역량을 가지고 있음. 이에 더해 민주적 조직운영 및 실무자에 대한 동기부여
를 위한 리더쉽역량 확보를 필요역량으로 하였음. 또한 해당 센터의 비전 및 운영전
략 수립 및 이를 위한 해당 지자체의 문화미디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설계 역량을
필요로 함.

3. 미디어교육 교강사

1) 방향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현황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인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미디어교육 지형 변화에 미디어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현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미디어교육 연구, 개발의 주체로 볼 필요가 있다. 기타 현황에서 사례로 제시한 ‘다음세대재단의 유스보이스 미디어교육자 발굴 및 양성지원사업’의 컨셉과 같이 재교육의 중심을 사업에서 사람으로 옮겨와야 하며,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성장에 따른 활동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지원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단발성 재교육 사업도 필요하지만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체계가 갖추어지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특히 활동 연차가 높은 교강사들이 주체적으로 연구·개발자와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 전임강사 시범 사업’과 같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활동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전임강사 시범 사업은 예술 강사들이 연구·개발자와 기획자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일정한 활동비 보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교육활동이 많을수록 연구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활동 환경도 유사하다. 그동안 미디어센터가 교강사를 지원해온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식적 대안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지점을 반영하여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미디어센터는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미디어교육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미디어센터의 자원과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활동의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미디어활동’은 공동체미디어, 마을미디어와 같이 미디어교육을 통해 지역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는 콘텐츠 생산활동을 일컫는다. 하지만 활동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민들을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지역민들에게 미디어교육을 실천하고, 미디어센터의 자원을 연결,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지역 미디어 콘텐츠 생산 활동의 멘토링 역할을 하는 미디어교육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에게 이러한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 미디어교육의 기획자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동체가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공간을 교육 현장으로 발굴하여 미디어활동을 꾸려갈 수도 있다.

현재 지역미디어센터에는 이런 역량을 가진 교강사들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센터 활동과 지역미디어활동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미디어센터는 지역미디어활동가로서의 교강사들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미디어센터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지역의 미디어허브 역할이라고 보았을 때, 미디어교사들을 단순하게 특정 사업의 실행자로 사고하기보다는 지역 미디어교육 현장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는 미디어교육기획자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미디어센터가 지역사회 내 미디어활동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그림을 그릴 때, 미디어센터 바깥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미디어활동 현장의 주체가 될 사람들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가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에게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재교육 과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2) 필요역량

2014년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설계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현장에서 미디어교육 교사의 활동 단계 및 성장과정을 보조교사-주교사-기획자-미디어교육 전문가로 구분하고, 교사양성과정의 단계를 입문-성장-심화-전문과정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설정하여, 입문과정은 보조교사 활동을 전제로, 성장과정은 주교사 활동을 전제로 교사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¹⁰⁾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요구능력을 성장과정별로 정리해보았다. 보조교

10) 서울영상미디어센터(2015),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운영평가연구」, 1장 2014년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현황과 평가. (p.15)

사는 교육기록, 참여관찰, 참여자 활동지원 및 평가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미디어센터 및 미디어교육 교사의 활동 전망을 알고 다양한 교육 참여자와 미디어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주교사는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주체이다. 주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미디어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이해, 다양한 미디어의 리터러시 능력, 교육평가에 대한 이해 등이다. 기획자는 교육현장을 발굴하고 교육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미디어교육 기획과 설계이 이해, 다양한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디어교육 기획자로서의 역할과 미디어교육 철학 이해, 교육 평가와 방법에 대한 이해, 다양한 미디어의 리터러시 능력 등이 있다. 주교사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는데, 주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미디어교육 실행 능력이 중심이고,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기획 능력이 중심이라고 보면 된다. 주교사와 기획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현장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획능력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공동체인지, 지역사회에 맞는 미디어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와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전문가는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나 교사양성과정, 교육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요구능력은 미디어교육의 역사와 철학 이해,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관련 이슈와 정책 이해, 미디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의 목표와 철학 이해 등이 있다.

성장단계	보조교사	주교사	기획자	미디어교육전문가
주요역할	교육기록, 참여관찰, 참여자 활동 지원 및 평가 참여	교육 내용 설계, 실행, 평가	교육현장 발굴, 교육 기획, 운영, 평가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교사양성, 교육자문
요구능력	-미디어센터 및 미디어교육 교사의 활동 전망 이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미디어교육의 철학 이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이해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이해 -교육 평가에 대한 이해	-기획자로서의 역할과 미디어교육의 철학 이해 -미디어교육 기획과 설계에 대한 이해 -다양한 참여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 평가와 방법에 대한 이해 -새롭게 등장한 미	-미디어교육의 역사와 철학 이해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관련 이슈와 정책 이해 -미디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의 목표와 철학 이해 -교육정책 이해

		-다양한 미디어의 리터러시 능력	미디어의 리터러시 능력	
--	--	-------------------	--------------	--

[표 12] 미디어교육 교사의 성장단계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미디어교육 교사의 성장단계를 따라 재교육 과정을 설계해보았다. 크게 재교육과정의 목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활동 경험이 있는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주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주교사를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요구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디어교육 전문가 단계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 밖으로 두었다. 지역미디어센터에서 주로 활동하는 교·강사들의 성장 단계가 대부분 주교사에 머물러 있고, 드물게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교·강사들이 있으나 미디어센터와 이미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미디어센터 밖에서 공동체 활동을 꾸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 교사는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운영평가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입문과정과 성장과정으로 구분했다.¹¹⁾ 입문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고, 성장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주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지역미디어센터가 교사양성 공통과정 시범운영사업을 진행했던 입문/성장과정을 연구 범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심화/전문과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능력	교육 목표	교육 영역	이수과정		재교육과정	
			입문	성장	심화	전문
미디어 연결 능력	미디어와 미디어 환경,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 이론	0			●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다.	미디어 분석과 비평	0		●	
		미디어제작 이론과 실제	0		0	
참여자 이해와 소통 능력	참여자의 심리와 인지발달단계,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 이해 이론과 실제	0		●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소통할 수 있다.	관계 형성과 소통			0	
교육 실행 능력	기본적인 교육 철학과 교육 이론을 이해하고 미디어교육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교육을	미디어교육 이해	0			
		교육 철학		0		●

11) 서울영상미디어센터(2015),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운영평가연구」, 1장 2014년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현황과 평가. (p.14)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교육을 분석, 평가, 정리하여 이후 교육의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수 설계	0	0	●	
		교수법		0	●	
		교육 평가		0	●	
연구 개발 능력	미디어교육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관련 이슈와 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방법론과 교육 자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생산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연구			0	●
		사례 연구			0	●
		교재 개발		0	●	
		교육학			0	●
		교육정책			0	●

[표 13]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교육 영역 및 이수체계도_수정안

위의 표는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운영평가연구(2015) 보고서에서 2014년, 2015년 시범운영사업의 평가 과정을 통해 새로이 제시한 2016년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교육 영역 및 이수체계도이다. 원래 보고서에 삽입된 표에는 이수과정에 입문, 성장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만 표기되어 있다. 미디어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미디어 연결능력, 참여자 이해와 소통능력, 교육 실행 능력, 연구 개발 능력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영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테두리를 진하게 표시한 ‘연구 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입문, 성장과정에서는 ‘교재 개발’을 제외한 다른 교육 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 오른쪽에 음영이 표시된 영역과 같이 심화과정과 전문과정의 권장 교육 영역을 덧붙여보았다.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별로 필요한 교육영역은 동일하게 설정하되, 재교육과정에서는 난이도를 달리하여 배치해보았다.(하단 표의 ●표기 : 동일한 교육 영역의 심화과정 표기)

심화 과정의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미디어교사에게 적절한 과정으로 설계하고, 미디어 연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영역으로 미디어 분석과 비평 심화, 미디어제작 이론과 실제를 선택하였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미디어콘텐츠도 그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 유통되기 때문에 심화과정으로 활동 교사들의 재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미디어 연결 능력 부분일 것이다. 참여자 이해와 소통능력 또한 기획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심화 과정을 배치하였다. 더불어 관계 형성과 소통 부분도 주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포함하였다. 교육 실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교수설계, 교수법, 교육 평가 영역을 포함하였다. 연구개발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영역으로 미디어교육연구, 사례연구, 교육학, 교육정책 모든 과정을 기초 과정으로 포함하였으며, 교재개발의 경우 성장과정에 진행된 교육 워크시트를 개발하는 내용보다는 심화된 과정이라 보면 된다. 교육대상, 커리큘럼에 맞는 완결성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전문 과정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의 미디어교사에게 적절한 과정으로 성장, 심화과정과 동일한 교육 영역은 난이도와 다루는 주제를 달리하여 진행하는 심층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심층과정이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면, 전문 과정의 경우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미디어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미디어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미디어교육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미디어교육 관련 이슈 및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더불어 교육경험을 후배 교강사들과 나눌 수 있는 교수자로서의 역량 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재교육과정으로 설계된 심화 과정 및 전문 과정 모두를 다루지는 않겠다. 심화 과정에 집중하여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주교사 활동 역량 강화와 미디어교육 기획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재교육과정으로 설계한 심화과정과 기존의 성장과정을 비교하여 교육 목표, 교육 영역, 교육 방법 등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보았다. 특히, 교육방법이 ‘강의’와 ‘실습’에 집중되어 있는 성장과정에 비해 심화과정의 교육방법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자료를 모아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이다. 연구보고서나 연구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작업도 연구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는 다양한 범주의 자기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의 주제, 결과물의 질 등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도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미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자신이 진행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설계와 교자료 생산 등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른바 미디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론적 정리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노하우’로 남겨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에게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은 미디어센터의 정책예산의 한계와 교·강사들의 재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센터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재교육을 ‘연구’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연구’의 주제에 따라 현장 경험에 기반한 공동의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여 미디어센터에서 활용과 배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할 수도 있고, 미디어센터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 현장을 발굴할 수도 있다. 미디어센터는 장기적으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성장을 위한 재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미디어센터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미디어

어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자, 교육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센터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에게 ‘연구’ 방식에 기초한 재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는 현장에서 다져진 교·강사들의 다양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기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의 주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 개인이 아니라 그룹단위로 활동하는 교사모임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과정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이러한 지원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동안 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교사모임을 결성하고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간과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소극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러한 교사모임이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상호 교류하고 학습하면서 일정한 결과물을 내는 Cop과정과 같은 작은 모임을 통한 ‘연구’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지 ‘재교육’차원으로 연구과정을 볼 것이 아니라 ‘일하며 학습하는 기회의 제공’차원으로 연구과정을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해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제도를 두어 단계별로 연구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연구자가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디어교육 현장에 있는 교·강사들의 연구 활동도 일종의 ‘학습 노동’으로 보고 자신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수준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항 목	성장과정	심화과정
교육 대상	-보조교사 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 있는 미디어교육 교강사, -주교사 활동 경력 1~2년인 미디어교육 교강사	-주교사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미디어교육 교강사
교육 목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진행,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모의수업을 실습을 통해 미디어교육 주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 참여자 대한 학습과 연구가 통합된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현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교육 기획자로서의 활동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교육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미디어교육 철학 이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이해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이해 -교육 평가에 대한 이해 -다양한 미디어의 리터러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자로서의 역할과 미디어교육 철학의 이해 -미디어교육 기획과 설계에 대한 이해 -다양한 참여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 평가와 방법에 대한 이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리터러시 능력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이슈와 정책을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분석, 평가하는 능력 -다양한 교육 방법론, 교육 자료를 연구·개발하는 능력 	
	교육 영역 별 학습 방법	미디어 연결능력	-	-	미디어 분석과 비평 (심화)
-			-	미디어 제작 이론과 실제(심화)	강의, 실습
참여자와의 소통능력		-	-	참여자와 이해 이론과 실제	연구
		-	-	관계 형성과 소통	강의, 연구
교육 실행능력		교육철학	강의	-	-
		교수설계	강의, 실습	교수설계(심화)	연구
		교수법	강의, 실습	교수법(심화)	연구
		교육평가	강의, 실습	교육평가(심화)	연구
연구 개발 능력		-	-	미디어교육 연구	연구
		-	-	사례 연구	연구
		교재 개발	실습	교재 개발	연구
		-	-	교육학	강의, 연구
		-	-	교육정책	강의, 연구

[표 14]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성장과정 및 심화과정 설계내용 비교

3) 역량확보를 위한 커리큘럼 구성방안(모델)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활동연차 및 성장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교육과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설계하였다. 하나는 CoP방식을 활용한 3~4개월의 단기과정으로 유사한 경력을 가진 미디어교육 교·강사 모임의 자발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제는 구성원들의 활동 연차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여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 교육방법론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연구 과정, 새로운 미디어 기술 학습과 미디어이론 세미나, 미디어이슈 토론 등의 학습과정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다른 하나는 9~10개월의 장기 과정으로 '지역 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디어교육과정 기획, 연구 및 개발, 실행, 평가에 이르는 미디어교육 수행의 전 과정을 기획자와 연구·개발자, 교육실행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 단, 장기 과정의 경우 참여자가 긴 기간 동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급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 강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①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학습활동 지원(기존 CoP과정의 확장)

미디어교육 주교사 활동 연차에 따라 주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교육 과정의 경우,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활동 연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미디어교육 교·강사는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경험으로 확인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를테면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공유, 색다른 교육 방법에 대한 갈증, 난이도에 맞는 교육 자료 생산, 커리큘럼 구성의 적절성 확인 등에 대한 욕구들이다. 활동 연차가 높을수록 교·강사들이 경험한 교육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는 더욱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강사들의 욕구를 세분화해서 더 촘촘하게 강의 중심의 재교육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으나, 다양하게 분화된 모든 이의 욕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기도 하고 참여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강의 중심 교육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강사들의 욕구를 반영하면서도 재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강사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단기 연구 혹은 학습 프로젝트 형태의 재교육과정을 설계해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CoP과정으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의 연구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구 및 학습 활동 그룹에서 결과물로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경력 많은 선배 교사의 멘토링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연구 결과에 대한 감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개요를 정리해보았다.

- 사 업 명 :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 사업
- 참여 대상 : 3년 이상 주교사 활동 경력을 가진 미디어교육 교·강사 3인 이상의 모임 (전체 구성원 중 2인 이상 주교사 경력 3년 이상일 경우 인정)
- 지원 혜택 :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학습활동의 지원

- 연구 인건비 지원 : 영화진흥위원회(또는 미디어센터)의 객원연구원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율 30%로 산정, 공동연구원 3인 기준의 인건비 지급
 - 멘토링(활동 계획과 관련한 영역의 전문가 자문, 감수 포함) 2~3회 지원
- 지원 방식 : 연구·학습 계획서 제출 후 심사 후 지원 확정
- 연구·학습 계획서 양식은 자유
 - 연구·학습 실행에서 평가까지 4개월 이내로 기간 설정
 - 계획서에 활동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 구성원 역할분담, 결과물 반드시 포함
 - 연구·학습의 기간 내에 결과물을 1부 제출, 결과물의 형태가 분명해야 함.
(교육 자료집, 교재, 연구보고서, 활동보고서, 세미나 자료집 등) 연구 결과물은 연구진의 동의하에 해당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심사 기준 : 연구자의 자기학습 의지, 선정된 주제 및 활동 목표의 적절성, 활동계획의 현실성, 예상 결과물의 수준 등
- 지원 분야 : 아래 중 택1

연구·활동 영역	세부 주제 설정 예시
미디어 분석과 비평	영화 리터러시 교재 개발, 사진 읽기 교육 자료집, 뉴미디어 분석 연구, TV드라마 비평집 등
미디어 제작 이론과 실제(심화)	드론을 활용한 영상제작 세미나를 통한 교사 활동 가이드 제작 등
교수설계(심화)	시각장애성인 라디오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교수법(심화)	중학생을 위한 사진 읽기 교육방법 개발, 학교미디어교육에 적합한 진로-영상 인터뷰 교육 워크시트 개발 등
교육평가(심화)	어린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평가 방법 개발 연구 등
미디어교육 연구	미디어교육 이론서 함께 읽기(세미나), 대안적 미디어교육 연구 등
사례 연구	장애 유형별 미디어교육 현황 연구, 특정 지역 학교미디어교육의 현황 연구, 교육 이론으로 살펴본 미디어교육 사례 연구 등
교재 개발	라디오교육 기초 교재 개발, 진로 영화 교재 개발, 애니메이션 교육용 워크시트 개발 등
교육정책	정책 현황 세미나, 미디어교육 정책 변화 연구 등
기타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지역 내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미디어교육 정보 매거진 제작 등

[표 15]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 사업 지원분야

② 지역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프로젝트

위에서 제시한 단기 과정이 교·강사들의 개별적인 학습 욕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 과정이라면, 장기 프로젝트형 재교육 운영과정은 교·강사들이 기획자와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안하는 장기 프로젝트는 미디어교육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미디어교사가 주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미디어센터에서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행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 명 : 지역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프로젝트 사업
- 운영기간 : 총 10개월
- 지원 대상 : 3년 이상 주교사 활동 경력을 가진 미디어교육 교·강사 2인
(모집 및 선발, 모집 시 활동이력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
- 지원 내용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수 활동 지원
(주 2회 정해진 시간에 1일 8시간씩 근무)
- 운영일정

활동 내용	활동 기간
-기존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석 -지역 미디어교육 지형 변화 연구(공동체별 미디어교육 수요 조사, 지역 내 미디어교육 현황조사 등)	1개월
-신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2개 프로그램 (교육 방향 설정, 교육 대상 연구, 활용 미디어 선정, 교육 자료 개발 생산, 교육 설계 연구 등) -과정 중 월 1회 연구·개발 멘토링 회의 참석	3개월
-2개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실행 준비 (참여자 모집 혹은 참여 공동체 섭외, 보조교사 섭외, 기자재 및 교육 공간 섭외) -과정 중 월 2회 미디어센터와 협업을 위한 운영회의 참석	2개월
-2개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실행	3개월
-2개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평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개월

[표 16] 지역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프로젝트 사업 운영일정

- 활동비 지급
 - 활동비 : 선발된 교·강사를 '연구 강사'로 선정하여 별도의 급여를 월말에 지급. 세금 포함 월 190만원(영화진흥위원회 또는 미디어센터의 객원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참여율 40%로 산정한 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인건비 지급)

- 신규 프로그램 연구·개발 멘토링 3회 지원

- 미디어센터 프로젝트 운영회의 4~5회 필수 참석

○ 지원 방식 : 모집 시 활동 이력서 및 활동 계획서 제출,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지원 확정

- 활동 이력서 및 활동 계획서 양식은 자유

- 사업 운영기간과 일정에 맞게 활동 계획서 작성할 것.

- 계획서에 자신의 미디어교육 활동 전망, 활동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 반드시 포함

-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1부 필수 제출.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은 연구진의 동의하에 해당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심사 기준 : 연구자의 자기성장 의지와 성실성, 제출한 활동 계획의 타당성, 활동계획의 현실성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시범적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1) 미디어센터 스태프 재교육과정 설계

① 프로그램 구성 방향

- 광역별 미디어센터 정책체계 수립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 지역미디어센터 실무자 및 책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단순 강의는 최소화 하며, 사전조사, 사례발표, 상호학습 및 멘토링 등을 통한 복합적 프로그램운영을 지향함. 사례발표 내용은 자료집으로 묶음으로써 향후 공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지역미디어센터 일반에 대한 이해, 해당 지역미디어센터 고유의 정책환경 및 비전수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이를 위해, 워크숍 형태의 집체 프로그램 외 개별센터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함.
- 실무자의 직무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직무별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해당 센터 내 타 분야 담당자의 의견 등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연계를 통한 사업기획·운영을 촉진시키고자 함.
- 2017년 상반기 새로운 수탁사업자가 선정된 화천생태영상센터, 2018년 새롭게 위탁기간이 시작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지자체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운영방향 재설정 중인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 해 시범운영은 강원도 내 지역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초기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권역내 지역미디어센터 간 정책체계 수립을 위한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였음.

② 실무자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안

일 차	시 간	구 분	내 용	비고
1일차	09:00~09:30		등록 및 짐정리	
	09:30~10:00		프로그램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10:00~12:00	[①_강의]	- 주제 : 지역미디어센터 연대기 - 강사 : 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①, ② 중 택일 가능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5:30	[④_직무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둠1	모둠2	
			사례발표	사례발표	멘토 2인
	사업기획		사업기획	멘토 2인	
	15:30~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8:00~19:00		사업기획 발표 및 토론		
19:00~21:00					
2일차	08:00~10:00	아침식사 및 휴식			
	10:00~12:00	프로그램 관련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토론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6:00	강릉지역 문화예술현장 방문			
	16:00~	해 산			

[표 17]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실무자 워크숍 프로그램일정표

② 센터별 프로그램 구성안

총5회	프로그램 내용	비고
1회	④ 진행을 위한 내부 사전 워크숍	멘토링 제공
1회	①, ② 중 실무자 워크숍에서 진행하지 않은 강의 1개 선택	강사 제공
1회	③ 내용 중 센터별 특성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멘토링 제공
1회	⑤ 내용 중 센터별 특성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멘토링 제공
1회	기타 센터별 특성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멘토링 제공

[표 18]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센터별 프로그램 구성안

③ 책임자 워크숍 프로그램안

일 차	시 간	구 분	내 용	비고
1일차	11:30~12:00		등록 및 짐정리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5:30	[B_워크숍]	- 사례발표 : 원주/화천/강릉 센터 당 20분 - 상호질문 및 멘토링	멘토
	15:30~16:00	휴 식		
	16:00~18:00	[A_강의]	- 주제 : 리더쉽 - 강사 : 미정	
	18:00~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22:00	[C_워크숍]	- 사례발표 : 원주/화천/강릉 센터 당 20분 - 상호질문 및 멘토링	멘토
2일차	08:00~10:00	아침식사 및 휴식		
	10:00~12:00	프로그램 관련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토론		
	12:00~13:30	점심식사 및 해산		

[표 19] 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워크숍 프로그램 일정표

2)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 과정 설계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해보고 최근의 교사교육 경향과 이전 사업들의 한계를 반영하여 재교육과정 시범운영 방안을 정리, 제안해보았다.

이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개별적 활동 상황보다 미디어센터 주요 사업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재교육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교·강사들의 경력에 따른 성장 욕구를 반영하여 재교육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로 특강 혹은 체험형 워크숍 등의 단발성 사업이라는 형식상의 한계가 크다. 새로운 경향으로 Cop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의 재교육이 있었으나 지속성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차후 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교육 교·강사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력 교사 그룹은 몇 년 째 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현장이 전에 비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연구·개발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지원해야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활동 환경을 고려한 대안적 지원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운영평가연구(2015,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리한 미디어교육 교사의 성장 단계를 바탕으로,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재교육과정을 심화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심화과정은 미디어교육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며, 전문과정은 미디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특히, 3년 이상 주교사 활동 경력이 있는 교사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고, 심화과정을 중심으로 두 가지 재교육 시범운영 방안을 개발하였다. 심화과정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통합된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현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교육 기획자로서의 활동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미디어교육 교·강사 재교육과정-심화과정 시범운영안을 사업 운영 기간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았다. 첫째, 미디어교육 교·강사 연구, 학습활동 지원 사업이다. 3인으로 구성된 미디어교육 교·강사 모임의 연구나 학습활동을 최대 4개월 동안 지원한다.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할 모임을 선발 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커리큘럼 개발, 교재 제작, 교육용 영상제작, 정책 연구 등 교·강사 모임의 욕구와 활동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열어두었다. 활동비는 연구 인건비로 책정되어 지급되며, 3회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미디어교육 현장 발굴 프로젝트이다. 장기 프로젝트형 재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었으며, 단기 과정이 단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에 비해 장기 과정은 미디어교육의 기획에서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미디어교육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지역 미디어교육의 지형변화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지 않은 신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모집과정을 거쳐 선발된 2인의 교·강사가 서로 협업하여 신규 프로그램 2종을 개발, 실행해보고 전체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이 10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선발된 교·강사는 10개월 간 주2회 16시간씩 정기적으로 연구를 위해 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해야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강사는 활동 기간 동안 월급 형태의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